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24>



당신은 '운명'을 믿습니까

몇 해 전 심여 명의 한국인들과 일본인이 대화를 나누는 적이 있었습니다. '운명' '운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주제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운명'이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미리 정해진 것'이라고 대답하였고 참 많은 사람들이 '운명은 있는데 나는 운명을 믿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에 대해 일본인은 "내가 일본인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운명이다. 그래서 나는 운명을 거역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운명'이란 것은 '지금 내게 닦긴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닦치고야 말 정해진 프로그램'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아무리 거대한 힘을 가졌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바꾸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듯 하였습니다. 반면 그 일본인은 운명이란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시작된 만큼 운명은 믿고 안 믿고, 바꾸고 믿고 할 차원의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나는 마음껏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양손에 '운명'과 '의지' 쥐고 편리한대로 선택

현재 어떤 뜻 세우느냐에 따라 미래 펼쳐져

터 그토록 달랐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운명'에 대해 상당히 이중적인 생각을 품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운명'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지금 현실의 나를 규정짓고 그렇게 살도록 지배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내가 진짜로 그렇게 살아지고 있다면, 믿지 않아도 나는 그렇게 살아질 것이고, 믿어도 그렇게 살아질 것입니다. 이 현실은 그저 내가 전생에 지은 악업의 과보를 받는 형상일 뿐이요. 그런 형상에 묶인 수감자는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의지를 낼 필요도 없고, 또 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애초부터 정해져 있는데 뭘 하려 의지를 일으키고 노력하겠습니까?

신자라는 내가 살인을 저지르거나 추악한 성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나에게 그 죄를 물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마음을 낸 것도 다 전생에 지은 업보로 그리 정해져 있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운명이 정해져 있고 그것이 나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운명이 정해져 있네, 신의 뜻이네 하면서 왜 어떤 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현재

의 그 사람에게 묻는 것입니까? 이미 모든 게 정해져 있다면서 왜 굳이 평가할 하려드는 것입니까? 현재 사람들이 뜻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 이 노력, 이 책임추궁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지금 열심히 미래를 만들어가면서도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사주팔자를 보거나 전생을 금궤 하는 것은 현실을 타개하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현실이 잘 풀려나가는 사람은 사주풀이나 운명 같은 것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일이 안 풀리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존하는 것인데, 뜻한 바대로 일이 풀리면 자신의 의지에 스스로 대견해 합니다. 그러나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는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 "내 운명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며 위로합니다. 마치 양손에 떡을 쥔 아이처럼 사람들은 한쪽 손에는 운명을, 다른 한쪽 손에는 자기의 의지를 쥐고서 그때그때 편리한 대로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내가 현실에서 어떻게 행동하는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지고 팔자가 바뀐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바뀐다면 그게 팔자입니까?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게 운명입니까? 어쩌면 애초부터 정해진 운명이나 팔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은 당시 종교와 사상을 크게 셋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원인은 신에 의해 만들어졌고, 신이 미래까지 좌지우지한다는 것(존우화자인론), 이 세상은 전부 전생의 각 본대로 펼쳐지고 움직인다는 것(속착인론), 세상의 사람이나 사물은 모두 아무런 인연 없이 그저 우연히 생겨나고 흩날리고 흩어지는 것(무인무연론)이라는 세 종류의 그것들 사상입니다. 이 셋에 대한 부처님의 지적은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현재 악업을 짓거나 죄를 짓는다면 그건 다 신에 의해 또는 과거에 지은 바에 의해 일어난다고 해야 하리니 누구에게 죄를 물을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또 노력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중야함경 도경)

현재의 내가 어떤 뜻을 일으키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는 펼쳐집니다. 내가 다른 이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업을 짓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천상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잊지도 않은 운명에 그 미래를 걸지는 말아야겠습니다. ■ 이미형(중국역경원 역경위원)



매순간 순간 재발심해야

'부처'는 어떤 조화를 부러서 따로 온 신격화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 부처가 됐으므로 정진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 도륜 스님.

떨어져서 걸어오는 스님을 보니 천성이 수행자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작은 체구에 깨끗하고 당당한 모습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수행 잘하는 스님' 그대로였다.

"무슨 말을 듣고자 애쓰지 마세요. 오랜만에 도반끼리 만나서 차 마시며 절대자유인인 부처가 되는데 제대로 가고 있는지 서로를 점검해 보기로 해요. 수행도, 대화도 혼자서만 하면 외롭잖아요' 합장하며 환하게 웃는 스님의 얼굴에서 '어디서 본 듯한다...' 하는 느낌이 들었다. 격의 없이 손지와 장난하며 놀아주던 친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한순간도 자신을 높이지 않고 똑같은 눈높이로 대해주던 친화 스님을 대하는 듯도 했다.

"우리가 완전무결한 인격을 갖추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듯 성인은 특별한 존재이고 인간은 채워질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지요?"

"...생각해본 지 오래되어서..."  
이! 이게 아닌데, 이 질문은 내가 하고 스님의 답을 들어야 하건만 처음부터 주객이 바뀐 느낌이었다. 거기다가 답변마저 공격했다. 스님의 물음은 화상 시절이야 누구나 한번쯤 가져볼지 했던 의문이지만 생활에 얽매면서 서서히 멀어져 버린 오래된 추억(?) 아니든가.

"나는 어려서부터 큰 의문이 있었는데 '왜, 어떻게 사는가'였습니다. 이것을 알기위해 인류는 누구나 배워야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디까지 배워야 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고자 유교 경전을 보고, 도교에 심취했지만 의문 풀이하는 데유 커져만 갔습니다. 절이 들 무렵인 17-18세쯤 되어서는 가지고 있던 모든 책들을 써들고 절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공부하기에는 절이 제격이었지요.

그런데 절에서 생활하다 보니 거기에 '산다는 것'에 대한 답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과거 현재 미래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불교관을 안 후로는 그야말로 검격과 환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머리를 깎았습니다. 저뿐 아니라 주위



도륜 스님

(보성 봉갑사 회주)

에서도 모두 설마 내가 중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막상 머리를 깎고 나니 전생에 공부하던 중생이었으니 금생에는 공부를 마쳐야한다는 발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도륜 스님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실했음에도 대화를 이어갔다. 애당초 스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간 자리였기에 스님의 결론을 배우고대학 스님 얼굴만 바라본 표현이 있었다. 그 모양새가 애초로 왔는지 스님은 말씀을 이으면서 '허리를 있으면 지적해 달라'고 또다시 주문한다.

"목표가 정해지면 어떻게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없으면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대부분 완전무결한 인격을 갖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교든 도교든 성인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라고는 하되, 궁극에 가서 절대자유인이 되라는 가르침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완전무결한 존재가 될 수 있으며 그를 일러 부처라 합니다. 부처는 어떤 조화를 부러서 따로 온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와서 부처가 되었고,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가슴에 명확히 새겨야 합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선언은 인류 최고의 말씀입니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목표가 있었기에 어떤 고난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론적으로 보면 부처가 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수월한 일입니다. 어려운 수행문제도 공식을 일련 쉽게 풀 수 있듯이, 알고 행하면 부처도 쉽게 되는 것입니다.

견성성불(見性成佛)은 수행하는 이들에게 부처가 되는 공식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자성불(自性佛)'에 귀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성은 '우리의 본심'입니다. 천지가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불성이자 깨달을 수 있는 성품입니다. 만물에는 본래 불성이 갖춰져 있고 무한대의 공력으로 찍어 있으니 내 것을 스스로 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부처님 전에 예를 올리기 위해 들렀던 법당 기둥에 '자성본래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평상.벤치탁자

◆ 평상 1500 - 820 - 400(mm) 가격 150,000 원(단가) 130,000 원(1,130 - 1,130 - 480(mm) 가격 220,000 원(단가) 190,000 원)

◆ 벤치탁자 set 1500 - 1790 - 750(mm) 가격 420,000 원(단가) 370,030 원

달라지거나 타겟이 전이 없고 우기적 도예이나 만리가 필요 없이 방 방구역에 해이 폭강이 부드럽고 허 온후 바를 만들 수 있는 평상 (목상, 기는, 유장판, 특수책, 달월, 광명 등등에서 사용 할 수 있는제품.)

도량형평상 전문업체 TEL: (063) 323-3010-1 FAX: (063) 323-3012

계좌번호: [농협] 505055-56-005933 예금주: 지구산업 학점포

전화주은시 무료배송 지역대리점 모집

“부처님 등불” 수공예 전기촛불

귀의 삼보 하옵시다. 기도 도량에 수행정진하시는 스님 불자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초가 타면서 발생되는 문제점 화재위험 및 그음음과 미세한 먼지 로 인하여 건강을 걱정 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하여서 이런 정들을 해소 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수공예 양초를 이용한 전기 촛불을 개발 하였습니다. 특히 조각 모양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 고안 되어 있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하였습니다. 스님과 불자님 이제는 안심하시고 늘 24시간 “부처님 등불”을 밝히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등불' 특징 안정성과 그음음 이 없고 불자님 가정과 법당에 늘 환이 밝힐 수 있으며 30초 간격 마다 촛불이 흔들리는게 특징인 세계적인 특이 제품입니다.

사용처 부처님전, 신전, 광안 등 기도용으로 널리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소원성취(다주) 소원성취(노랑) 소원성취(흰색) 소원성취(파랑)

연꽃초 범당, 탑돌이, 방생 등 특이이외의 다양한 곳에서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보현불교 예술원 불교용품 · 불상조성 · 전기촛불 · 양초제작 전문 · 불교 용품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81-119번지 02)996-8830

소원성취

영험 부영이 길상도

구암 합창

불초 소승은 인연 영흥도 토굴에 묻혀 수행중에 있는 납자로써 영험한 부영이 길상도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때 한 선비를 만났는데, 선비께서 대사는 기골이 장대하고 기가 넘쳐나기에 만인을 위하여 알려드리니 이질 꼭 지켜주기 바란다며 하시는 말씀이, 부영새를 그려서 집에는 이와 사임하는 이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옛 중국 문헌의 기록을 두루 살피고 정성과 원력을 세워 그려서 그 집에 3년동안 모셔두면 집에는 사람은 3년 안에 집을 사고 사임하는 이는 사임이 변창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수년간 실천해 왔는데 별다른 일 뜻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많은 이들이 소원성취를 이루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께서는 연락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그려서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달마다 한점 함께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TEL : 032)886-3586 H·P : 011-9458-6616 FAX : 032)886-3587

영흥도 서래달마원 구암 합창

법비 내리는 곳! 부처님 광명이 충만한 곳!

동해사

어떤 소원도 이루는 곳. 기도영험 도량인 동해사에 오셔서 소원 이루어 보세요

▶ 낙산사 흥련암 10분 소요  
휴휴암 15분 소요  
▶ 불타사 10분 소요  
▶ 바닷가 방생지 3분 소요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점심 공양 제공(예약에 한함)  
답답한 분 상담은 혜명스님과...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법비오는 곳 동해사  
033)672-2900, 671-6079

불(自性本來佛)'이란 글이 쓰여 있던 것이 생각났다. 스스로의 성품을 보면 부처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불자라면 한번쯤 들어볼직한 말이다. 누구나 알고 있건만 그게 잘 안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답답한 마음에 스님에게 '어떻게 하던 되는지' 단도직입으로 물었다. 그러자 스님의 반문이 돌아왔다.

"무의식을 인정합니까, 부정합니까?"  
 "가끔 무의식을 체험합니다."  
 "무의식은 나도 모르게 의식이 단절되는 것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도 무의식중에는 지혜나 힘이 생겨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재의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에게나 알 수 없는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잠재력은 무의식중에 나옵니다. 의식이 막고 있지요. 그렇다면 누가 주었을까요. 부처님이 준 것도, 부모가 준 것도 아닙니다. 자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끼고 있습니까. 내 것이면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환선, 기도, 염불이 바로 잠재력 개발이라 하겠습니까. 숨겨놓지 말고 개발해서 자신이 쓰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 개발하지는 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체입니다."  
 어디에서 힘이 솟는지 시간이 흐르면서 노구의 스님은 도리어 한마디 한마디에 기운이 넘쳐났다. 방편과 비유로 근기에 따라 대기설법 하던 부처님이 그러하듯 스님도 초심자를 대하듯 쉽게쉽게 말을 이어갔다. 그렇지만 스님이 초지일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함께 부처 되자'는 것이었다.

### 목표 정해지면 어떻게든 갈 수 있어 자타 없고 선악 없을때 '자기완성'

"방편으로 근기가 있습니다. 크게 상 중 하근기로 나눕니다. 상근기는 인간으로서 가야할 길이기에 목표를 향해 지금 이 순간부터 그 길을 쫓 겁니다. 중근기는 법당 밖으로 나가면서 부처되겠다는 생각을 잊고 있다가 다시 법당 나누는 자리가 있으면 부처되어야 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자꾸자꾸 자성본래 불을 찾고 실천해야 합니다. 저도 중근기여서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근기는 '배부른 소리하고 있네' 라며 당초 부처되는 소리조차 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근기라 함지라도 불성이 있어 언젠가는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인연으로든 일단 불교를 접했다면 중근기 이상입니다. 분명히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처가 되는 기회를 자주 늘려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인연에 따라 참선이나 염불, 기도, 경전 보는 것에 의지해 불성을 찾는 것은 좋은 방편이 될 것입니다. 어느 것이든 한시도 놓치지 않고 자성을 바로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선(禪)이지요.  
 특히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불성을 개발해 온 복이 많은 민족입니다.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이 불법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은 인간의 완성을 뜻하며, 불교의 화엄사상과 상통합니다. 오랫동안 뛰어난 성품이기에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나 쉽게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한시도 불성을 놓치지 말고 바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스님은 복원중인 봉갑사를 "인성교육도량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의식계 조를 통해 자성을 개발하고 내 자신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아 지상극락을 이루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진정한 자기완성은 선도 악도 떠난 자리이다"고 강



도론 스님(오른쪽)은 만물에는 본래 불성이 갖추져 있고 무한대의 공덕으로 꼭 차 있으니 내것을 스스로 개발하라고 말한다. 왼쪽의 스님은 조계종 봉갑사 주지 각안 스님.

조한다.  
 "악의 근본은 보리(菩提)이며 보리는 진리입니다. 상대가 있기에 선 악이란 대상을 두는 것입니다. 선은 악을 떠나 아무리 해도 진리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선이 없어야 악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선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악도 나오는 것입니다. 자타가 없고, 선악이 없을 때 자기완성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일생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좀더 공부합니다. 그리고 언젠든 오세요, 부처님 제지답게 수시로 자신이 어떠한가 함께 점검해 보기도 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자"는 스님의 말씀이 공부하지 않는 오늘의 우리에게 질책과 격려가 되어 다가왔다. '매 순간 순간이 재발심'되어야 한다는 스님의 가르침이 천봉산을 내려오는 내내 귓가에 맴돌고 있었다.

글=이준엽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 현성 스님의 스님이야기

법오 스님 (上)

법오(法悟) 스님은 한 눈 팔지 않고 선방에만 다닌 스님이다. 법랍은 그리 많지 않지만 선원 이력이 화려하다. 스님은 게으르지 않고 정진을 열심히 하며, 뛰어난 천화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 법오 스님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방귀가 떠오른다. 다른 스님들에게 법오 스님의 방귀 얘기를 꺼내면 모두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 까짓 냄새가 뭐 대수냐고 말하던 사람들도 한번 그 냄새를 맡고 나면 다 나가 떨어진다.  
 차담일이나 지대방에서 담소하며 차를 마시던 스님들도 법오 스님이 들어오면 술을 자리를 옆으로 옮기며 경계한다. 얼마나 지독한지 어떤 스님은 화를 내는 것을 보았다.  
 선원에서는 큰방에 수십 명이 서로 등을 뒤로

법오 스님은 그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하는 정진파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오직 공부만 한다.  
 언젠가 법오 스님과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 중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삼매(三昧)에 들어가 몇날 며칠을 꼼짝 않고 앉아있는 적이 있다고 했다. 물론 삼매 자체가 깨달음은 아니지만, 스님의 화두가 어느 정도 익어서 스님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 주위 신장(神將)들이 스님을 도와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님은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몸은 멀쩡했다고 한다. 또한 선원에서 두 철을 같이 살면서 사고가 두 번이나 있었다. 그 사고에는 모두 법오 스님이 끼어 있었는데 무사했다.  
 한번은 목욕식발일 날 산행을 하게 되었다. 식발일 날은 대부분 수행을 잠시 멈추고 심신도 단련할 겸 산행을 주로 한다. 그 날 법오 스님과 나를 위시해서 다섯 명이 한 팀이 되어 산행을 했다. 맛있는 산행 코스에 식성한 스님들은 일부러



그림 문병성

하고 좌복 위에 앉는다. 겨울에는 문도 열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앉다보니 공기 오염이 큰 문제가 된다.  
 나는 방귀를 잘 꾸는 두 스님과 나란히 앉아 공부를 했다. 한 스님은 냄새는 없지만 그 소리가 요상 아팠었고, 또 법오 스님은 소리는 작지만 냄새는 가히 원자폭탄 급이었다. 큰방에서는 산 쪽에서 바람이 계속 불어와 순환하므로 나는 다행히 그 냄새를 많이 맡지 않게 되었지만 뒤에 앉은 상판 스님들에게 고스란히 내려갔다.  
 드디어 어느 날 참다못한 상판 스님을 쪽에서 맡아 나왔다. 발우 공양이 다 끝나고 대중들이 있는 자리에서, 생리적인 문제에 대해 조심해달라는 상판 스님의 공식적인 요구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문제는 어쩔 수가 없어서 법오 스님의 방귀는 소리를 더 줄여서 이후로도 계속되었다.  
 법오 스님은 그 방귀 냄새를 고쳐보려고 마흔 고생을 많이 한 모양이었다. 그래서 악을 지어서 계속 먹었다.  
 얼마 전 상원사 선방에 있는 법오 스님을 보러 갈 기회가 있었다. 스님의 몸이 좋아져서 냄새가 옛날처럼 지독하지 않았다. 참 다행스러웠다.

### 오랫동안 탁발·토굴 생활...숨은 도인으로 통해

**도론 스님은** 1927년 전남 보성 생. 부친이 한약방을 운영하여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일찍이 유교를 접했다. 어려서부터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골몰하다 도교에 심취하기도 했다.  
 청년기에 유교와 도교를 섭렵하고자 공부할 장소로 사찰을 선택했고, 뜻하지 않게 그동안 풀리지 않던 의문이 불교에서 찾을 수 있음을 알고 출가했다.  
 고창 선운사에서 박한영 스님의 마지막 제자

인 청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도론 스님은 해남 대흥사에서 10여년간 은사를 모시고 사중일을 보며 강원 이력을 마쳤다.  
 그후 탁발구도에 나서 10년간 바람하나 메고 전국을 다니며 법을 구했다. 2년간 열반한 청화 스님은 출가 전부터 인연이 있어 진불암, 해운사 등 토굴에서 방을 같이 쓰며 가장 오랜동안 함께 정진한 스승이기도 하다.  
 15년전, 마라난타 존자가 정진했다는 호남의 3갈(혈갑사, 도갑사, 봉갑사)중 하나인 봉갑사터

에서 발걸음을 멈췄고, 토굴을 짓고 정진하며 봉갑사 중창을 발원하고 있다.  
 스님은 오랫동안 탁발과 토굴을 전전해온 탓에 지역에서 '숨은 도인'으로 통하고 있다. 찾아오는 이가 있으면 누구도 마다않고 손을 맞잡고 법담을 나누기에 봉갑사를 찾는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인터뷰 내내 스님은 법력과 나이를 내세운 일방적인 훈시가 아니라 함께 정진하는 도반이 되어 마주앉아 묻고, 답하고, 모순이 있으면 지적해 주기를 청했다.

###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병을 약사여래부처님의 원력으로



자광스님

장애를 가진 스님이야기에 몸 아픈 이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고경사 자광스님은 오불전 약사여래부처님을 모시고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을 부처님의 원력과 스님의 지극정성 기도로 치료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각종 신병 - 친견 상담 환영**

대구경북신문 2004년 12월 21일자 5면  
 화제의 스님 탐방기사 중에서

종합 newskorea 2005년 1월 5일자 37면  
 기사 중에서

스님 자신은 장애자이지만 정상인으로 오히려 장애자를 돌보는 듯했다. 뒤늦게나마 확인되어 알려진 청산자광스님의 부처님의 지극한 불심은 불치병에 걸린 모 종합병원 의사의 어머니가 후

원인모를 병으로 서울 등지의 유명의원을 전전해 오면서 생을 포기하고 환자의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마지막으로 가산 정리를 위해 1주일만 더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환자 부인의 애원으로 학가산에서 가족과 함께 기도로 완치되어 주위의 사랑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부처님의 원력과 가피력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들여다 보인다  
 세상 모든 만물이 적용되는 방향이 있어, 골라서 처방하고...  
 인간에게 잠귀가 스미면 잠이 몰아내야 하고... 병이 나오려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아무리 독한 병일지라도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극정성이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약사경>

### 대한불교본원종 고경사 (찾아 오시는 길 : 경기도에서 20분, 서울동 IC에서 25분)

경북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 89번지 전화 054-638-8886, 8887 핸드폰 011-507-8885

### 滿 行 靴

상표등록 제614981호  
 의장출원 제35872호



극세사 (만행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망사 (만행화)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단화 특징 : 만행 및 포행시 단정함을 유지 (수행자 복장과 조화)      ● 단화 색상구분 : 스님용 - 회색, 흑, 백 / 신도용 - 흑, 백

### 과학으로 탄생시킨



\* 가격 : 20,000원  
 \* 규격 : 조절가능

### 건강웰빙 기능성길창

만행 및 포행시 발바닥 주요경락을 지압하여 누적된 피로를 풀어 주고 특히 몸무게 하중으로 짓눌려 고생하는 발바닥 지압을 통해 몸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제조원 : 벽산아트  
 만행화 www.manhaenghwa.co.kr

문의 및 주문  
 TEL : (02) 927-5715  
 H.P : 011-9000-5715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29-212  
 동월 063-12-250427 예금주 : 구자인

※ 제품 확인 하신후 구입결정 하실 수 있습니다. ※ 스님, 도반님께 선물용으로 참 좋습니다.